

가거도·대흑산도·거문도, 국가관리항에

국토부, 11곳 지정... 업무·주거·근린시설 들어서 5000t급 선박·함정 접안 가능 관광객 증가 예상

신안 가거도와 대흑산도, 여수 거문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가거도·백령도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 최끝단에 있는 주요 도서 연안항만 11곳이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

정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면 항만 배후단지에 금융·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시설과 문화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의 생계 지원금 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항만 배후단지는 1종과 2종으로 구분, 2종 배후단지에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과 주거·숙박·관광·문화·복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한 항구당 500억~600억원을 지원, 기존 1000t 이하 선박만 접안 가능하던 항만을 5000t급 대형 선박·함정이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항만은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선박

이나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 안전한 피항지 역할을 하게 된다”며 “나후 도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 정주 여건이 개선돼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주요 섬들이 주요 국가 안보지역인 불구하고 항구가 작아 대형 구조선·군함·해경함 등이 접안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그 대안책으로 나온 조치로 향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관리연안항=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지난 2월 개정 공포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다. 이들 항만은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곳은 가거도와 대흑산도, 거문도 이외에 서해 중부의 백령도 울기포·연평도·상왕등도, 남해안 국도·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 동해의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여름 여행의 시작은 완도 명사십리에서

25일 조기개장... 여수박람회 연계 관광객 유치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지난해보다 보름 앞당겨 지난 25일 조기 개장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해 전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완도로 유인하기 위한 발 빠른 관광객 유치 전략이다. 완도군은 “섬 여행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올 여름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장식은 무사안녕 기원 고사와 해상 퍼레이드, 풍놀이 해상안전 인명구조 시범훈련, 바나나보트 탑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완도해경과 (사)한국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 해남소방서 완도 119 센터는 합동으로 인명구조 시범 훈련을 선보였다. 완도군은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에 66실 규모의 해양 펜션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 관광지 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2만6000㎡ 규모의 자영차 아영장 조성사업이 내년에 완공되면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완도군은 지난 26일 등산연합회 회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명사갯길’ 걷기 행사와 함께 ‘주인 지킴이단’ 발대식을 가졌다.

군은 201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총길이 15km의 ‘명사갯길’을 조성, 이날 개통식을 가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명사갯길’은 다도해 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기분이 상쾌한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도보길”이라며 “앞으로 연간 12만명 이상이 ‘명사갯길’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진기자 eichung@



함평군 다시마 시범양식 성공... 하반기 대량 생산

갯벌로 유명한 함평면에서 다시마 시범양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함평군은 최근 안병호 함평군수를 비롯해 수산업 경영인, 월천 어업인, 군 산하 관계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마를 첫 수확했다. 군은 지난 2월 군비 1000만원을 들여 3ha의 양식시설을 설치, 채묘 후 3개월간 성장과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번 시범양식에 탄력을 받아 군은

하반기에 다시마 양식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군은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과 함께 군비 1억원을 투입, 전북 가두리 시범양식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해조류뿐 아니라 고막, 키조개, 바지락 등 패류 양식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매년 사업비 1억 이상을 투입해 집중 양식할 계획이다.

김용진 군 해양수산계장은 “함평면에서 다시마 시범양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어업 소득증대의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목포의료원, 지역 거점병원 역할 특목

찾아가는 무료진료 등 시민건강증진 최선

목포시 의료원(원장 최태욱)이 우수 의료진 초빙과 최신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서남권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특목히 해내고 있다.

시 의료원은 최근 척추·관절센터 등 우수 의료진을 초빙하는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달 들어서 관내 16개교 초·중·고교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과 소변, 혈액, 흉부 방사선, 혈액형, 간염검사 등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혈압 측정·혈액검사·방사선 촬영·보건교육 등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맞춤형 공공 보건 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5월부터 산부인과를 개설, 서남권 지역의 산부인과 병원의원이 없거나 의료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무료진료’를 실시해 지역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았다.

올해도 서남권 5개 지역(보성·영암·함평·진도·신안)의 임산부와 가입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의 진료와 초음파 검사, 산전 검사 등 3회 이상 이동 무료진료를 실시해 출산율 제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 의료원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사업비 85억 원을 들여 의료원 본관(연면적 9046㎡)에 대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시 의료원은 이달 말까지 설계 공역을 완료하고, 다음 달 입찰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 후 본관 건물 구조물 보수·보강과 함께 병·난방, 위생 설비를 교체하는 등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태욱 원장은 “올해에도 찾아가는 무료진료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해남 산불 발생 전년대비 20% 감소

해남군의 산불 발생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해 종료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발생건수는 모두 9건으로 예년에 비

해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피해면적 역시 2.92ha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했던 피해면적 45.88ha과 비교해 6%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산불피해가 줄어든 것은 군

이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2명을 고용해 산불취약지 정기 순찰과 함께 논·밭두렁 소각을 집중 단속한 것이 성과를 거뒀다. 또 읍·면에서도 산불예방을 위해 행정차량 가두방송과 마을방송을 통해 산불방지에 적극 동참해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전북 공시지가 2.9% 상승

최고 땅값은 고사동 금강제화

도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1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고시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250만9947필지로 전체 필지(374만338필지)의 67.1%가 조사·산정됐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금강제화 부지)이며 ㎡당 705만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반면 진안군 미령면 동촌리 산 11-3은 ㎡당 79원으로 가장 싼다.

부안군은 국립공원 일부 지역의 해제 및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으로 10.7%가 인상돼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별 상승률은 부안군에 이어 완주군(7.8%), 익산시(5.6%), 전주·김제시(5.5%) 순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배대 가공공장 준공

‘사랑해 황금배대’ 전국 유통

군산 지역 특산품인 배대 가공공장이 문을 열었다.

(유)아리울수산(대표 박금옥)은 지난 26일 성산면 삼자들로에서 배대 가공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배대 가공공장은 부지면적 4874㎡, 연면적 594㎡(지상 2층) 규모로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최신 위생시설인 HACCP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업체는 앞으로 배대구이, 배대절임, 배대탕, 배대묵 등 다양한 가공품을 ‘사랑해(海) 황금배대’라는 브랜드 명으로 전국에 유통 판매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순창, 토종발효미생물 활용사업 활기

정부 선도사업 선정... 3년간 국비 30억 지원

장류·절임류 등 제품 개발 1000억 매출 계획

(재)순창군 발효 미생물 관리센터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호남광역 선도사업 바이오식품 분야에 선정돼 앞으로 3년동안 30억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발효 미생물 관리센터(사진)는 전북도와 순창군 장류 사업소의 지원을 받아 센터 입주기업인 대상(주)의 대

상 중앙연구소와 장류밸리네 (농)순창장류(주), 쌈무 유통업체인 대상 FNF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센터는 앞으로 토종 발효 미생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발효식품과기능성 장류, 매주, 절임류 제품을 개발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미생물이 산업화로 적용되는 최초 사례로 다른 식품이나 사료, 의약품 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

이라며 “미생물 자원을 10년 이내에 30만 균주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지리산 둘레길 한바퀴... 추억도 쌓고 건강도 챙기세요”

274km 완전 개통... 5개 시군 이어

지리산을 한바퀴 도는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둘레길’이 완전히 이어졌다.

산림청과 (사)숲길은 지난 25일 남원시와 구례군의 경계 지역인 지리산 밤재에서 지리산 둘레길 통합 개통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는 지리산 권역 5개 시·군 지역주민과 공무원 산림청 관계자 및 등산·레저 분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림청은 ‘지리산 둘레길’을 만드는 데 공헌한 5개 시·군과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숲길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사) 숲길은 개통식에 맞춰

‘지리산 둘레길’ 한 바퀴를 모두 걸은 둘레길 이음단원 16명에게 최초의 완주 인증 증명서를 수여했다.

‘지리산 둘레길’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조성한 총거리 274km의 도보길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의 3개도 5개시·군 20개 읍·면 117개 마을을 지난다. 이항주 남원시장은 “통합개통식을 계기로 더 많은 탐방객이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추억을 쌓고 평안을 얻고 건강을 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지난 25일 열린 ‘지리산 둘레길’ 통합 개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행사 후 둘레길을 걷고 있다. <남원시 제공>

단신

전주, 둘째·넷째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전주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의무 휴업 날인 둘째·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동네슈퍼 가는 날’로 정하고 남부·모래내시장, 중앙상가 등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벌인다. 남부시장은 30개 점포에서 라면·채소·건어물 등 15종에 대한

할인판매 행사를 한다. 모래내시장은 웰빙 잡곡과 계란·라면·화장지 등을 할인판매하며 중앙상가시장은 180개 점포에서 의류·신발·잡화 등 10~50%까지 할인판매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해누리 김’ 美 처녀 수출

군산시 (주)아리울21 식품이 생산한 기능성 조미김 ‘해누리 김’ 5t (1만달러·한화 1200만원)이 지난 27일 미국으로 첫 수출됐다. (주)아리울21 식품은 지난 4월 경제통상원의 소개로 미국 무역회사인 M&S 인터내셔널과 꾸준히 수출협의를 진행한 결과 연간

15t의 조미 김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서혁원 대표는 “이번 미국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현지 무역회사인 대련 대관무역 유한공사 대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정읍 ‘옥정호 난국정 음악회’ 성황

‘제2회 옥정호 난국정 음악회’가 지난 26일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호반에서 성료됐다. 산내면사무소와 난국정 보존회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물관리단이 후원한 이번 음악회는 옥정호와 산내면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부대행사로 열린 산내정 향토 음식 품평회는 산더덕 비빔밥 등 각 마을별 특색적이고 감칠맛 있는 음식이 선보였다. 인근 9개 펜션 사업자들은 음악회 당일 200여명의 외지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 호응을 얻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parkks@

국립민속국악원 31일 ‘자갈치 아리랑’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31일 오후 7시 예원당에서 국악 뮤지컬 ‘자갈치 아리랑’을 선보인다. ‘자갈치 아리랑’은 부산포 자갈치를 중심으로 서민층의 삶에 기반을 둔 국악뮤지컬로, 국립부

속국악원 예술단원과 객원 등 70여 명이 출연한다. 화사하고 고고한 동백꽃을 닮은 부인과 주색잡기에 능한 박한량의 사랑·결혼 등 삶의 이야기를 영남 춤과 소리로 전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